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 :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사진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진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수 : 2쪽	아동담당관	노은주	02-2133-5162
	아동정책팀장	전규영	02-2133-5163

서울시, 2월1일부터 ‘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’ 9천 원으로 인상

-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단가 8천원 → 9천원 인상으로 보다 양질의 급식 제공
- 대상아동 2만7천여 명… 아동급식카드, 지역아동센터, 도시락배달 등 적용
- 꿈나무카드(아동급식카드) 일일 한도액 24,000원에서 27,000원으로 상향 조정

- 서울시가 2월1일(목)부터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를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한다.

- 이번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인상은 서울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외식물가로 인해 기존 급식단가(8천 원)로는 아동이 양질의 식사를 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,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.
 - 결식우려아동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서울시·자치구·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.

- 서울시 내 결식우려아동은 약 2만 7천여 명 수준으로, 서울시는 아동급식카드, 지역아동센터,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 중이다. 인상된 급식단가는 해당 급식 지원 방식에 모두 적용돼 보다 질 높은

급식으로 이어져 결식우려 아동의 식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.

□ 아동급식단가가 9천 원으로 인상되면서 꿈나무카드(아동급식카드) 일일한도액 역시 24,000원에서 27,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, 아동들은 보다 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○ 현재 서울시의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은 약 10만여 개로, 한식·양식·중식·일식·일반대중음식·편의점·패스트푸드·제과점 등이며 신규음식점은 영업점을 오픈하여 카드단말기 설치 시 자동으로 꿈나무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다.

□ 한편,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아동급식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에서 60% 이하로 확대해 차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넓혔다.

○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근로, 질병·장애 등의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방법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, 전자우편,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www.bokjiro.go.kr), 우편 등이다.

○ 신청 후에는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아동의 급식지원 필요여부, 지원 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·판단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.

□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“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인상으로 성장기 아이들이 더욱 영양가 있는 한끼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.”며 “결식우려아동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.”고 말했다.